



What's new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46 호 | 2020.10.30

딜로이트 안진, 아태지역 내 '올해의 한국 이전가격 펌'에 선정

지난해 ITR 1 등급 평가에 이어 2020 년도 수상...
이전가격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성 인정받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8 월 26 일 조세 전문 매체인 ITR(International Tax Review)이 개최한 Asia Tax Awards 2020 에서 '올해의 한국 이전가격 펌' (South Korea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습니다.

Asia Tax Awards 는 ITR 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아시아퍼시픽 18 개 국가에서 조세 관련 우수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야별 최고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ITR 은 유럽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및 금융 전문 매체 중 하나로 꼽히는 '유로머니(Euromoney)'의 조세 전문지로, 조세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매체 중 하나입니다.

딜로이트 안진 이전가격그룹은 국세청 출신의 이전가격 전문가들과 회계사·변호사·세무사·경제학 전문가 등 40 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 이전가격문제와 관련된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 년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작업에 참여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이전가격 분야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이번 평가에서 딜로이트는 아태지역 내 이전가격 서비스에서 올해 최고의 프로페셔널 서비스 브랜드로 선정되면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굳혔고, 한국에서는 딜로이트 안진이 지난해 ITR 평가에서 최우수 펌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이전가격 펌'으로 선정되면서 이전가격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용찬 딜로이트 안진 이전가격그룹장은 “이번 수상은 글로벌 조세 전문가들이 딜로이트 안진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향후에도 최고 전문가들의 인사이트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직면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글로벌 인사·세무 이슈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불확실성 속 모빌리티 및 HR 전략 제시...해외주재원 관리실태 사례 발표도 호응도 높여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지난 9월 4일 국내 주요 기업 인사·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글로벌 인사 및 세무 관리 이슈’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업무와 해외출장, 그리고 해외파견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인사관리 및 세무 이슈 변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기획됐습니다.

웨비나는 서민수 딜로이트 안진 GES(Global Employer Service)그룹 리더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혁기 GES 그룹 이사가 ‘코로나 19로 인한 Global Mobility의 변화’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권 이사는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본국 및 파견국에서의 세무신고 이행 시 주의사항,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 시의 대처방안, 그리고 국가별 사증발급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주재원 관리실태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며 강연을 이어가 참석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송한상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상무가 ‘코로나 19 이후 다가올 HR의 미래’라는 주제로 원격근무와 같은 효과적인 업무 방식을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국내 주요 기업 인사·세무 담당자들은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유용하고 핵심적인 전략과 사례 제공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장은 “코로나 19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례없는 빠른 경영환경 변화를 맞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웨비나 진행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인사관리와 세무업무 이슈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롭게 재편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글로벌 인사·세무관리 이슈’ 웨비나는 한국 딜로이트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deloittekorea>)에서 재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 세계 163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17위

2020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발표

노르웨이 3년 연속 1위...미국 28위로 정체 심화

아시아 日·韓·中 순...한국 2014년 이래 최고 순위

COVID-19와 경제위기 대응 미흡 시 UN의 SDGs 달성 요원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표한 2020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 결과를 인용, 163 개 조사 대상국의 사회발전지수는 평균 64.24 점으로, 지난해의 64.47 점 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11 년의 60.63 점에 비해서는 3.61 점이 증가해 지난 10 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딜로이트는 2013 년부터 SPI 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조사기구에 의하면 지난 10 년 동안 163 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55 개 국가의 사회발전지수는 최소 1 점 이상 상승했으며, 69 개 국가는 무려 5 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은 21.61 점,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7.45 점, 그리고 주거환경은 6.10 점 상승해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개인의 권리와 포용성은 각각 6.42 점과 3.48 점이 하락해 역행하는 양상을 보여, 개인의 안전과 환경의 질은 지난 10 년 동안 정체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3 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사회·환경 등 사회발전 측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는 올해까지 3 년 연속 1 위를 차지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안전을 포함하는 기본육구부문에서 8 위(96.85 점), 기초지식과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환경의 질을 포함하는 웰빙부문에서는 1 위(93.39 점), 그리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기회부문에서는 3 위(87.95 점)를 차지해 세계 최고의 ‘복지 강국’이라는 명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1 위 노르웨이의 뒤는 덴마크(2 위), 핀란드(3 위), 뉴질랜드(4 위), 스웨덴(5 위), 스위스(6 위), 캐나다(7 위), 호주(8 위), 아이슬란드(9 위), 그리고 네덜란드(10 위)가 이으며 서구권 국가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톱 10(TOP 10)을 석권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올해 28 위를 차지하며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18 년 25 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 위권 대로 하락한 미국은 지난해 26 위, 그리고 올해 28 위에 랭크되면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환경의 질(2019 년 59 위→2020 년 119 위)과 건강과 복지(2019 년 34 위→2020 년 42 위)에서 크게 하락하며 웰빙부문이 지난해에 비해 5 단계 하락한 37 위를 차지했습니다. 비교 기간을 10 년으로 늘리면 미국의 정체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기회부문에서 포용성이 7.59 점, 그리고 기본육구부문에서 개인안전이 5.99 점이 하락하는 등 지난 10 년 간 브라질 및 헝가리와 더불어 사회발전지수가 하락한 3 개 국가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아시아 주요 3 국은 일본(13 위), 한국(17 위), 중국(100 위) 순으로, 중국(2019 년 89 위)과 일본의 순위(2019 년 10 위)는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반면 한국은 지난해 23 위에서 6 단계 상승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국이 100 개를 넘은 첫 해인 2014 년 이후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육구부문(영양과 의료지원, 물과 위생시설, 주거환경, 개인의 안전)에서 96.92 점을 기록해 동 부문에서 지난해와 같은 7 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웰빙부문(기초지식과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건강과 복지, 그리고 환경의 질)에서는 90.12 점으로 17 위를 차지하며 86.08 점으로 25 위를 기록한 지난해에 비해 8 단계 상승했습니다. 또한 기회부문(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에서는 80.13 점으로 22 위에 올라, 73.90 점으로 26 위를 차지했던 지난해에 비해 4 단계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웰빙부문에서 환경의 질 점수가 지난해 61.02 점(92 위)에서 올해 79.78 점(80 위)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부문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지난해 62.48 점(15 위)에서 올해 86.41 점(3 위)로 무려 23.93 점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을 지난해 89 위에서 올해 100 위로 11 단계 하락했습니다. 특히 웰빙부문의 세부항목인 환경의 질이 크게 하락했으며(2019년 55.08 점→2020년 38.89 점), 기회부문에서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지난해에 비해 고루 하락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홍콩시위에 대한 중국의 과잉진압이 기회부문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사회발전조사기구(UNEP)는 COVID-19와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UN이 설정한 17가지 지속가능개발 목표인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 시점이 당초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회발전조사기구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SDGs는 당초 목표였던 2030년에 비해 50년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COVID-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그보다 10년 더 늦춰져 2092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셰론 손(Sharon Thorne) 딜로이트 글로벌 보드 의장 겸 사회발전지수 보드 위원은 “COVID-19는 기업·정부·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글로벌 문제는 다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우리는 사회발전지수를 더 나은 노멀(better normal)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 보다 빠르게 SDGs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호 한국 딜로이트그룹 리스크자문본부 파트너는 “COVID-19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회발전지수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소셜 임팩트의 전략화와 극대화를 꾀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 사회발전지수’ 리포트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ocialprogress.org/assets/downloads/resources/2020/2020-Global-SPI-Findings.pdf>

딜로이트 안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안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체 상장사 확대 시점 대비...

임직원 등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공개 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8층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과 이기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및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시작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고, 감사 수준의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범위가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는 2023년을 앞두고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체결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기업 임직원과 감사(위원회) 대상의 동영상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자를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원사와 고객사가 언제든지 교육을 재신청하며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자료를 양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이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회계투명성 개선이 크게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은 “많은 상장기업들이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딜로이트 안진과의 협업을 통해 회원사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는 “상장기업들을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의 협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인 상장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신뢰도와 회계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B2B 용 앱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설

B2B 앱 개발 시 필수인 차세대 UX 솔루션 기술 특화...

일대일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인력 양성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세계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SAP 코리아, ICT 교육시장의 선두주자인 솔데스크와 공동으로 B2B 용 앱(App) 개발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Web 개발자를 위한 SAP UX Fiori App 개발과정’ 주말반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오리(Fiori)는 B2B 앱(App) 개발 시 사용되는 차세대 UX 솔루션으로, B2B 용 App 을 개발 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딜로이트 컨설팅과 SAP 코리아, 솔데스크가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Web 개발자를 위한 SAP UX Fiori App 개발과정’은 웹 개발이나 프로그래밍에 관심있는 디자이너를 포함해 Fiori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Fiori 개발자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SAP Tech 및 ABAP 기초 과정을 시작으로, B2B 용 Fiori App 개발의 모든 과정을 수강생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현업 경험이 풍부한 SAP 공인 강사가 수강생들과 함께 기업용 SAP Fiori 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단계별로 일대일 전문 멘토링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마친 수강생에게는 SAP Fiori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딜로이트 컨설팅 프로젝트를 위한 인재 풀(Pool)에도 등록됩니다.

이번 과정은 단순 Fiori 개발 기술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 B2B 용 앱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바 개발자나 웹 디자이너가 B2B 용 앱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B2B 용 앱 개발자를 양성함으로써 SAP Fiori 개발자 부족으로 빚어지는 개발자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창희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전무는 “Fiori 기술만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은 많지만 B2B 용 앱 개발을 위해 A to Z 를 가르치는 교육은 이번 과정이 유일”하다며 “수강생들은 전문가들과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향후 실제 프로젝트 투입 시 SAP Fiori 앱을 바로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b 개발자를 위한 SAP UX Fiori App 개발과정’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3 번의 과정이 오픈됩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 내 오픈하는 과정은 오는 10월 17일(토)부터 11월 15일(일)까지의 수업으로, 총 5주간 10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 시 30 분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슬데스크 홈페이지에서 10 월 12 일까지, 선착순 20 명만 신청가능하며, 수강료는 350 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내년에는 2020 년 1 월 9 일부터 2 월 7 일까지, 그리고 4 월 10 일부터 5 월 9 일까지 추가 운영됩니다. 내년도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10 월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 종료된 이후 슬데스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와 '글로벌 스포츠 인사이트 컨퍼런스' 공동 개최

국내 스포츠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성 강조...

코로나 19 로 인한 스포츠산업 위기 극복 방향 제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0 월 15 일,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와 '글로벌 스포츠 인사이트 컨퍼런스(Global Sports Insight Conference)'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딜로이트 안진과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가 공동으로 코로나 19 로 인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과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는 지난 6 월 '스포츠 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유수의 스포츠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스폰서십, 중계권, 경기 운영 등 전반적인 스포츠산업의 구조 변화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해외 스포츠산업 사례 등을 소개하며 포스트 코로나 19 를 대비할 심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 과정 모두 웨비나로 진행됐으며 '글로벌 스포츠 인사이트 컨퍼런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방영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호성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가 팬데믹과 스포츠산업의 재건에 대하여, 정동섭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가 국내 스포츠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니키 왕(Nikki Wang) 딜로이트 차이나의 스포츠비즈니스 총괄이 중국의 스포츠비즈니스 발전과 성공사례에 대해, 제임스 월턴(James Walton) 딜로이트 동남아시아 스포츠비즈니스그룹 리더가 코로나 19 가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재 딜로이트 안진 스포츠비즈니스그룹 이사가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대비하는 스포츠산업의 위기 극복 전략을 제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이해섭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를 필두로 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박성준 (사)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장은 "최근 국내 스포츠 산업이 코로나 19 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학회 회원을 비롯한 국내 스포츠 산업계가 국내외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전하는 인사이트와 해외 유용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기완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장은 "딜로이트 안진 스포츠비즈니스그룹은 스포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명을 가지고 출범한 만큼 스포츠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는 활동에도 중요한 의미를 두고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와 함께 코로나 19 이후 새롭게 진화된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